

한전,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체크리스트 개편·LTE무전기 도입

'안전 메아리' 제도 의무화
협력업체 상호 확인체계 구축
감전·추락 위험항목 집중 정비
안전조치 이행·기록 관리 강화
서류 중심서 현장형 체계 전환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 간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 메아리는 공사 현장에서 협력 회사의 작업 책임자와 작업자가 핵심 안전수칙을 서로 구두로 반복해 확인하는 방식의 안전 의사소통 체계를 말한다.

전력설비 공사 현장은 감전, 떨어짐, 끼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 환경이다. 그간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 부족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한전은 기존 서류 중심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 메아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 '안전 메아리' 시행 의무화, ▲안전 중심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전면 재정립, ▲'스마트 안전기기' 단계적 도입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한전은 전력설비 공사의 상당 부분이 협력회사에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해, 협력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조치사항을 상호 확인하도록 제도화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감전, 접지, 안전고리 체결 등 핵심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업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 체크리스트'도 전면 재정립한다.

기존 체크리스트를 안전 법령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감전·떨어짐 등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핵심 점검 항목 위주로 재구성했다.

특히, 주요 작업 절차마다 작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안전 조치사항을 명문화해 작업자소통이 안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회사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안전기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무전기와 사용 방식이 유사하면서도 통신 거리와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LTE 무전기'를 한전이 구매해 협력회사에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협력회사는 장비를 활용해 안전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기록·관리함으로써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향후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효과를 분석하고 확산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핵심 안전수칙이 작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서부발전, 직원 혁신으로 미래사업 발굴

'더블유피 노바' 본격 가동
해외 선진사례 연구·탐방 6팀 선발

한국서부발전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에 도입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서부발전은 7일 직원 주도형 혁신 프로그램인 '더블유피 노바(WP NOV A·New Opportunity & Vision Acceleration) 셉트 디자인 글로벌 챌린지'에 참여할 최종 6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블유피 노바는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직원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주제를 선정하고,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총 27개 팀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

을 보였다. 서부발전은 활동 계획의 적정성과 업무 적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더블유피솔라리본', '서부가그린대로', '더블유피 카본헌터스', '더블유피 밸류업', '클린앤클리어', '스카이 라이트' 등 6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최종 심사에는 강영재 엔솔파트너스(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윤상연 미국전력연구소(EPRI) 한국법인 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선발된 팀들은 앞으로 무탄소 전원 도입, 탄소감축 기술, 해상풍력 사업 개발 등 해외 선진 기업과 연구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직에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신기술·신사업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프로그램 성과를 전사에 공유하고 우수과제는 연구 과제로 확대해 성과 창출을 이끌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국민 체감 행정개선 나선다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 선정·추진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최근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처리 지연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 등 소극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총 17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이다.

우선 공단은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일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업무상질병 판정서 약 19만 건을 추가로 공개해 산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곧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K-딸기 경쟁력 강화

해외판로 확대방안 논의

생산자대표조직 정기총회

농협이 '2026년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정기총회'를 열어 K-딸기의 해외 진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기범 협의회장 등 전국 딸기주산지 농협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은 전국 71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 등을 통해 국산딸기 소비촉진에 힘쓰고 있다.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결산 ▲딸기농가 대상 보급형스마트팜 사업 참여 확산 ▲'2027 농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참여 및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7 농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K-베리,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 최초 딸기산업 특화 전시회다. 내년 2~3월 중 예정돼 있다.

강호동 농협회장은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K-딸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폴리텍대학, 하반기 교수 초빙

AI 전환 맞춤형 인재 키운다

전국 19개 분야 하반기 임용 진행
전기·반도체 등 미래산업 수요 반영
현장 실무 3년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

한국폴리텍대학이 미래 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국 캠퍼스 총 82명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에 발맞춘 현장 중심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계열별 채용 인원은 전기(15명), 반도체(12명), 산업설비(9명), 자동차(8명), 기계(5명) 등 총 19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을 갖추고 3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이 있는 자다.

특히 대학 측은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그동안 지원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실무와 연구 경력을 중

합 평가해 '현장 밀착형' 교수진을 구축해 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임용된 신규 교원 30명 역시 삼성전자파운드리 수석연구원 출신인 신경식 교수(반도체공정), 현대제철 및 포스코실리콘솔루션 거친 박진기 교수(제출시스템), 기술사 3관왕 우명선 교수(AI전기)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이철수 이사장은 "2026년은 직업교육 대전환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의 해'라며 "인공지능 산업 전환속에서 국민이 기술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실무 전문가들을 강단에 모시겠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4월 1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임용은 오는 8월 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kopo.ac.kr)과 채용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비료·농업용 필름 수급 점검 돌입

농식품부, 중동사태 파급 합동점검

정부가 비료·농업용 필름 등의 수급 점검에 나선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용 필름에 대해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합동점검반을 파견해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으로 구성되며 총 10개 팀·240여 명을 투입한다.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자재(폴리에틸렌) 사용량·재고량 및 향후 필요량을 확인한다. 또 제품가격 상승을 기대해 재고를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중동전쟁 전후의 원자재 가격 변동을 집계한다.



지난 6일 경기 고양의 농협 자재센터에 요소 사용 비료 제품이 보관돼 있다. /뉴시스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재센터 및 민간 자재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3~5개소, 전국 700여 개소를 선정해 제품 재고량 및 수요량을 확인한다. 아울러 판매량 및 제품 가격 변화 등을 확인해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원가 상승 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비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